

공시 기업 내부거래 183兆... 삼성 등 상위 10대기업 비중 ↓

전년 대비 내부 거래액 소폭 감소
자금·자산 국내 계열사 차입 14.6조
“이익편취 예방 위해 정보 지속 제공”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액은 총 183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 거래액은 135조4000억원, 비중은 13.1%로 전년(150조4000억원, 14.1%) 대비 금액은 15조원 줄었고, 비중은 1.0%포인트 감소했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상장사 2곳, 비상장사 12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



성경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2.98조원)에서 58.6%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총수2세 지분율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5%)보다 2배 높았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한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

취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모두 감소했다.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익계약 비중과 금액도 각각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도 분석한 결과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었고, 그 중 비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조3900억원을 빌려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0.12조원), 네이버(0.08조원), 미래에셋(0.05조원) 순이다.

23개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23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조원), 농협(0.06조원), 셀트리온(0.04조원), 부영(0.04조원) 순이다. 특히 효성의 경우 ㈜에이에스씨, 효스티앤에스(주), 효성굿스프링스(주)가 주요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1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일부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공시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6조74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69조원)이 특수관계인

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05조원), 현대자동차(0.22조원), 삼성(0.18조원), 영풍(0.08조원) 순이다.

38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조3000억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36개)의 담보 제공 금액(11.95조원)이 총수 없는 집단(2개, 0.3조원)보다 약 11조7000억원 많았다.

공정위 성경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동반성장협약 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中 ‘베이징 거래소’, 수백배 급등 종목 속출

● 차이나 뉴스&리포트

상장 첫 날 가격제한 없이 거래
나스닥 경쟁 가능성 관심 집중

베이징증권거래소(이하 베이징거래소)가 신규 상장 종목의 급등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다. 상장 첫 날은 가격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게하자 수백 배 뛰는 종목도 속출했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일컬어 지는 베이징거래소가 중국 중소 혁신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는 물론 실제 나스닥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베이징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종목은 총 81개다. 전일 신규 상장기업이 10곳이며, 나머지 71곳은 기존 장외

벤처기업 전용 거래소인 신삼판(新三板·NEEQ)에서 옮겨왔다.

베이징거래소는 지난 9월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설립 방침을 밝힌 지 약 두 달여 만에 초고속으로 개장했다. 시 주석이 직접 언급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었다. 단 하루만에 거래소 법인 등록을 끝냈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업공개(IPO) 규정 등 세부 사항까지 나왔다.

베이징거래소의 상장대상은 중소 혁신기업이다. 상하이 증시는 물론 기술 주가 많은 선전 증시 보다도 상장이 쉽도록 해냈다.

이와 함께 베이징거래소는 가격제한 폭을 30%로 확대했다. 상하이나 선전 증시 10%는 물론 과장판과 창업판

20%보다도 완화했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첫 날에는 상하한가 제한폭을 없앴다. 전일 최고 494% 급등한 종목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다.

인베스코 홍콩의 중국 주식 수석 포트폴리오 크리스 류 매니저는 “베이징 거래소는 잠재력이 많지만 초기 성장 단계인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며 “중국 중소 혁신기업들의 중요한 육성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관련 포인트는 베이징거래소가 나스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다. 현재 약 200여개의 기업들이 베이징거래소에 상장 신청 의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롯데 한미컨소시엄, 내년부터 실증 비행

>> 1면 ‘산업 경계 허문...’서 계속

현대차 등 5개사는 UAM 팀코리아 활동과 K-UAM 그랜드챌린지에 동참한다.

특히 현대그룹차그룹은 2040년 1조5000억달러(약 164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UAM 시장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내 UAM 독립 법인의 이름을 ‘슈퍼널’로 확정했다. 슈퍼널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캘리포니아에 연구시설 개설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도 이날 UAM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롯데를 포함한 한미 컨소시엄은 오는 2024년 인천공항에서 서울 잠실까지 구간 운항을 목표로, 내년부터 실증 비행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는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에 나선다. 롯데지주와 롯데렌탈은 미국 스카이웍스에어로노틱스, 모비우스에너지, 인천광역시 등과 7자 업무협력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UAM 실증 비행을 추진한다.

참여자 중 비행체 분야는 스카이웍스에어로노틱스(미국, 비행체 개발), 모비우스에너지(미국, 배터리 모듈 개발), 민트어(한국, 비행체 운영)가 담당하고, 인천광역시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시험비행 및 사업운영 지원 역할을 한다.

롯데렌탈은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을 중점 추진하고,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및 충전소 등 기반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그룹 내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해 실증비행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를 했다. 롯데는 모빌리티 분야도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렌탈은 자율주행 주행 기술 기업인 포티닷(42dot)과 업무협약(MOU) 및 자본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공동 연구 및 사업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버스(Baas) 사업협력 MOU를 체결하며 모빌리티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5일 전기차 충전사 ‘중앙제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6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 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하고 세종시 등에서 실증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꾸려진 ‘K-UAM 드림팀’은 지난 11일 한국형 UAM 종합 실증에 성공했다. 당시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수도권 UAM 상용화를 위한 운용모델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이날 김포국제공항 외부 상공을 3분가량 순회한 UAM 조종사와 지상통제소 사이를 상공과 지상 이동통신망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했다.

항공기가 오가는 공항에서 UAM이 뜨고 내릴 때 안전하게 관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UAM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항 시설을 이용하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가능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시연이다.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김포공항과 서울 도심에 있는 노선에 실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北·이란 등 주요 지역 문제 의견 교환

美·中 정상 화상회담

바이든 “대만 현상변경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회담에서 북한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갈등 현안인 대만,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통해 “복잡한 성격의 관계와 책임감 있는 경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

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와 관심사, 가치관 시각이 엇갈리는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 아프간니스탄 이란을 포함한 주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현상을 바꾸거나 대만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치는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장·타베트·홍콩에서의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를 더욱 광범위하게 제기했다”고 전했다. 신장 위구르 노동자 문제 등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뉴시스